

第2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開會式 本會 議 會 議 錄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4月9日(金) 15時04分 開式

第24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會辭
6.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韓相殷)

(15時04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第24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서서 壇上의 國旗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前奏曲에 따라 1節만 齊唱하겠습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친애하는 議員 同志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金東勳 區廳長님과 朴漢慶 副區廳長, 그리고 각 局의 局長님, 그리고 금번 명에 의해서 부임하신 여러 課長님,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區廳 당국의 간부 직원 여러분과 언론기관 여러분!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다는 말과 같이 이 땅 위에 30년 만에 도래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언간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앞둔 2年을 맞이하는 이때 금번 오늘부터 開議되는 臨時會는 참으로 의의깊고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잠시 지나온 2年 동안을 되돌아볼 때 그동안 일전의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라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자 생각과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오로지 그 누구 하나 사심없이 區政 發展과 區民 복지를 위해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임기 4년도 그럭저럭 2年을 흘려보내고 그야말로 나머지 2年이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 議員으로서 우리를 믿고 선출해 주신 洞民과 區民 모두에게 참다운 議員으로서의 위상과 그야말로 그분들의 근저러움을 만분의 일이라도 안겨줄 수 있는 사실 길고도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臨時會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 하에 참담게 우리를 선출해 주신 區民에게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야말로 서울의 1번지 대한민국의 거울인 鍾路人의 議會답게 우리 스스로 더욱더 합심단결하고 오로지 구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성스러운 議會와 議員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땀땀하게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오늘 臨時會를 맞이한 開會의

말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第24回 鍾路
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時12分 閉式)